

# 쿠르스크 초원의 전차전

## 제1장: 새벽 안개 속의 그림자

1943년 7월 12일 새벽 5시 30분, 프로호로프카 서쪽 12km

이른 새벽 안개가 러시아 초원을 하얀 베일로 덮고 있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아직 대지는 차가운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이 고요한 새벽이 곧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차전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독일 제2 SS기갑군단 소속 중전차대대의 티거 1 전차 '검은 기사' 호 안에서, 하우프트만 발터 슈트라우스는 지휘관 큐폴라를 통해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스물여덟 살의 슈트라우스는 이미 동부전선에서 2년간 싸워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가 새긴 깊은 주름이 있었고, 회색 눈동자에는 전쟁의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헤르 하우프트만, 무전 점점 완료했습니다." 무전수 게프라이터 루카스 바이어가 보고했다. 스무 살의 바이어는 3개월 전 서부전선에서 전속되어 온 신참이었다. 아직 그의 얼굴에는 고향 바이에른의 순박함이 남아 있었지만, 동부전선의 잔혹함을 목격하며 점점 굳어져가고 있었다.

"좋다, 바이어. 엔진 상태는 어떤가, 하인츠?" 슈트라우스가 조종수에게 물었다.

"완벽합니다, 헤르 하우프트만, 마일바흐 HL230 엔진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종수 펠트베벨 하인츠 뮐러가 대답했다. 그는 이 700마력 엔진의 모든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티거 I은 독일이 자랑하는 최신예 중전차였다. 중량 57톤, 정면 장갑 100mm, 측면 장갑 80mm의 강력한 방어력과 8.8cm KwK 36 L/56 주포의 치명적인 화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만큼 연료 소모가 심했고, 기계적 결함이 잦았다.

"포수 준비 상태는?" 슈트라우스가 물었다.

"88mm 주포 완전 점검 완료. 철갑탄 92발, 고폭탄 8발 장전 완료했습니다." 오버게프라이터 클라우스 짐머가 답했다. 그는 이 전차의 가장 경험 많은 포수였다.

"장전수는?"

"준비 완료, 헤르 하우프트만." 게프라이터 슈테판 홀츠가 짧게 대답했다.

슈트라우스는 망원경을 들고 전방을 살펴보았다. 저 멀리 소비에트군의 방어선이 있을 것이었다. 정보에 따르면 소비에트 제5근위전차군이 이 일대에 대규모로 전개되어 있다고 했다.

"바이어, 본부에 보고해라. 검은 기사, 예정된 위치에서 대기 중이라고."

"야불, 헤르 하우프트만!"

## 제2장: 과거의 그림자

새벽 5시 45분 - 전투 전의 회상

슈트라우스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전쟁 전, 그는 뮌헨의 한 김나지움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학생들에게 알렉산더 대왕의 전술과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르치며 전쟁을 학문으로만 접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알았지만, 그것은 책 속의 활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1941년, 조국을 위해 군복을 입은 후, 그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생존이 곧 승리라는 냉혹한 진리만을 신봉하게 되었다. 3개월 전 하르코프에서 잃은 열아홉 살 조종수 게르하르트 슈미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약혼녀 이야기를 하며 수줍어하던 그 어린 생명은 한 줌의 재로 변했다.

"헤르 하우스프트만, 괜찮으십니까?" 바이어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옛 생각을 했을 뿐이다." 슈트라우스는 바이어의 어린 얼굴에서 슈미트의 모습을 보았다. 전쟁 전 목공 견습생이었던 바이어는 언젠가 고향에 부모님을 위한 멋진 집을 짓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 순수한 꿈이 포화 속에서 부서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바이어, 오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명중률입니까, 헤르 하우스프트만?"

"아니다. 생존이다. 죽은 영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포수 짐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1차 대전 참전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전쟁의 영광 대신 포탄이 터지는 소리와 진흙의 악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 덕에 클라우스는 전쟁의 낭만 따위는 믿지 않았다.

조종수 뮐러는 부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1차 대전 패배와 대공황을 모두 겪은 그는 전쟁을 이념이나 명예가 아닌,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일'로 여겼다. 그에게 이 티저 전차는 무기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강철 일터였다.

장전수 홀츠는 함부르크의 항구 노동자 출신이었다. 전쟁 전 그의 꿈은 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것이었다. 이국의 항구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상상에 부풀었던 청년은 이제 그저 고향의 항구 냄새를 다시 맡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어버렸다.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교사, 목수, 노동자... 각기 다른 삶을 살던 이들이 57톤의 강철 관 안에서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었다. 전쟁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듯 냉혹한 생존 기계로 바꾸어 놓았다.

## 동쪽 2km 지점

T-34 '붉은 복수자' 호 안의 알렉산드르 볼코프 역시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전쟁 전, 그는 트랙터 공장의 유능한 엔지니어였다.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새로 태어날 딸 카티아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전쟁은 그의 손에 렌치 대신 총을 쥐여주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보병이었던 형 니콜라이가 독일 전차에 돌격하다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본 이후,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동지 레이테난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포수 페트로프가 물었다.

"형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도 독일군과 싸우다가 죽었지."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군요."

"아니다, 미하일.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볼코프는 가슴 주머니의 낡은 가족사진을 만지작거렸다. 아내 나타샤와 딸 카티아.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한 사랑 때문에 싸운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전쟁 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페트로프는 포탄의 궤적을 계산할 때마다 마치 칠판에 어려운 수식을 푸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만, 계산이 틀리면 죽음이라는 끔찍한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볼코프는 잠망경 너머로 전차와 함께 집결하는 보병들을 보았다. 대부분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앳된 소년들이었다. 그들은 낡은 소총 한 자루와 몇 발의 수류탄만 든 채, 정치장교의 선동적인 연설에 "우라!"를

외치고 있었다. 볼코프는 저들이 곧 독일군의 기관총 세례를 받으며 쓰러져 나갈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스탈린 동지의 명령이고, 수적 우세로 적을 압도하는 소련의 방식이었다.

"동지 레이테난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출신 조종수 코즐로프가 물었다. 독일군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그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이다, 이반. 우리에게 저 동지들이 있다. 그들의 희생이 우리의 길을 열 것이다." 볼코프는 냉정하게 말했다.

무전수 소콜로프는 포위된 레닌그라드에서 굶주리고 있을 가족을 떠올렸다. 그에게 이 전투는 가족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볼코프는 자신의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엔지니어, 교사, 농부, 학생... 그들 역시 전쟁이 아니었다면 각자의 삶을 살았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조국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동지들의 시체를 밟고서라도 전진해야 하는 붉은 군대의 병사일 뿐이었다.

## 제3장: 첫 번째 접촉

오전 6시 30분 - 1,000미터 거리

안개가 걷히자, 슈트라우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전차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보병들이 T-34 전차들을 방패 삼아 함께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검은 강물이 밀려오는 듯했다.

"세상에... 저게 다 뭐가." 바이어가 중얼거렸다.

"인해전술이다." 슈트라우스가 짧게 말했다. "짐머, 전차를 조준하되, 기관총도 준비해라. 보병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야볼, 헤르 하우프트만!"

"하인츠, 엔진 최대 출력으로! 정면 대결은 피한다.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씩 처리한다!"

볼코프 역시 티거의 위용을 확인했다. "페트로프, 티거다! 정면은 소용없다. 측면을 노려야 한다! 코즐로프, 지그재그로! 보병들을 믿고 최대한 빠르게 접근한다!"

T-34들이 기동을 시작하자, 뒤따르던 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초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오전 6시 45분 - 800미터 거리

"거리 800미터!" 짐머가 외쳤다.

"사격!"

WOOM!

티거의 88mm 포탄이 날아갔지만, 기민하게 움직인 T-34를 빗나갔다. 그 순간, 티거의 차체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타!

선두에서 달려오던 소련군 보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비명과 고통이 포성과 뒤섞여 지옥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동료들을 넘어 계속해서 달려왔다.

BOOM!

T-34의 포탄이 티거의 정면 장갑을 때렸지만, 불꽃만 튀고 튕겨 나갔다.

"우리 장갑을 믿어라!" 슈트라우스가 외쳤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속이 메스꺼웠다. 저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 그저 총알받이였다.

볼코프는 자신의 잠망경으로 동지들이 쓰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저들의 희생은 티거의 주포가 보병에게 향하는 동안, 자신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 '미안하다, 동지들!' 그는 속으로 되뇌며 조종수에게 소리쳤다. "더 빨리!"

## 제4장: 포위망 속의 사투

오전 7시 - 700미터 거리

"두 번째 사격!"

WOOM! BOOM!

이번에는 88mm 포탄이 T-34 한 대의 포탑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전차가 폭발하는 와중에도, 티거의 기관총은 쉬지 않고 불을 뿜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보병들과 T-34들은 마침내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좌측에서 두 대, 우측에서 두 대, 정면에서 한 대가 접근 중입니다! 보병들도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바이어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젠장!" 슈트라우스는 욕설을 내뱉었다. "하인츠, 후진! 거리를 벌려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T-34들은 빠른 속도로 티거를 포위하기 시작했고, 일부 보병들은 전차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수류탄을 던지려 하고 있었다.

볼코프의 T-34가 티거의 우측면을 향해 돌진하며 사격했다.

BOOM! CLANG!

포탄은 튕겨 나갔지만, 같은 시각 다른 T-34들이 쏜 포탄들이 연이어 티거를 강타했다. 누적된 충격에 장갑이 비명을 질렀다.

"짐머, 가장 가까운 놈부터 처리한다!"

WOOM! 세 번째 T-34가 폭발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침내 좌측에서 날아온 포탄이 반복적으로 타격받은 측면 장갑을 꿰뚫었다.

BOOM!

티거 내부에 불꽃이 튀고 파편이 휘몰아쳤다. 슈트라우스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헤르 하우스프트만!"

"괜찮다! 계속 싸워라!"

유압 시스템이 파괴되어 포탑 회전이 급격히 느려졌다. 이제 티거는 거대한 관이나 다름없었다.

오전 7시 30분 - 절망적인 상황

볼코프는 승리를 확신했다. "마지막 공격이다! 모든 전차, 동시에 돌격!"

네 대의 T-34가 사방에서 티거를 향해 돌진하며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BOOM! BOOM! BOOM! BOOM!

연쇄적인 관통과 함께 티거 내부에서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다.

"탈출해라!"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승무원들이 해치를 열었지만, 조종수 뒤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 제5장: 잿더미 위의 만남

### 오전 7시 45분 - 전투의 종료

불타는 티거 주변에는 수많은 소련군 보병들의 시신이 검은 재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볼코프는 T-34에서 내렸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귓가에는 여전히 포성과 동지들의 비명이 맴돌았다. 2대의 전차와 셀 수 없이 많은 보병을 잃고 얻은 처참한 승리였다. 승리의 환호 대신,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다.

"동지 레이테난트, 독일군 승무원들이 탈출했습니다." 페트로프가 보고했다.

"...체포해라. 부상자는... 치료해주고." 볼코프는 기계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그는 불타는 강철 괴물에서 기어 나온 생존자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 지휘관, 슈트라우스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우월감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우프트만 발터 슈트라우스입니다." 슈트라우스가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널브러진 어린 보병들의 시신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끔찍한 전술이군."

"전쟁은 원래 끔찍한 것입니다, 하우프트만." 볼코프가 낮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이나 자부심이 아닌,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두 지휘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념도, 국가도 없었다. 오직 파괴된 강철과, 너무 일찍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시신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 오전 8시 30분 - 갈림길

소비에트 군의관이 도착해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슈트라우스는 어깨에 거친 붕대를 감는 동안, 자신의 부하인 바이어와 짐머, 홀츠가 포로로서 한곳에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종수 뒤편은 저 불타는 관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그때, 상급 부대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무전으로 하달되었다.

"볼코프 동지, 즉시 부대를 재정비하여 서쪽으로 5km 전진하라! 독일군 판터 부대가 접근 중이다!"

볼코프는 입술을 깨물었다. 슬픔에 잠길 시간도, 전리품을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그는 남은 두 대의 T-34를 향해 돌아서며 정치장교에게 포로 처리를 인계했다.

"하우프트만, 당신들은 후방으로 이송될 것이다." 볼코프는 슈트라우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것이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볼코프는 새로운 죽음의 전장을 향해, 슈트라우스는 불확실한 생존의 길을 향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 쿠르스크의 두 전차장

## 제6장: 엇갈린 운명, 새로운 적

### 오전 11시 15분 - 또 다른 지옥

볼코프의 작은 부대가 서쪽으로 전진하던 중, 지평선 너머로 낮선 실루엣이 나타났다. 판터. 독일군의 신형 전차였다. 티거보다 빠르고, 더 치명적인 상대였다.

"전차 발견! 방위각 280도!"

볼코프의 외침이 무전을 타고 퍼졌지만, 이미 늦었다. 첫 번째 포탄이 선두 T-34를 관통했고, 전차는 폭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압도적인 성능 차이 앞에 그의 남은 전차들은 추풍낙엽처럼 격파당했다.

"후퇴! 후퇴하라!"

하지만 볼코프는 후퇴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붉은 복수자'로 판터를 향해 자살적인 돌격을 감행했다. 적의 측면을 노린 한 발이 명중했고, 판터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 순간, 또 다른 포탄이 그의 전차를 강타했다. 세상이 뒤집혔다.

### 오후 1시 - 적의 야전병원

볼코프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코끝에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텐트 천장이 보였고, 독일어가 들렸다. 그는 적의 야전병원에 있었다.

"아, 깨어나셨군요."

젊은 독일군 장교가 그의 침상 옆에 서 있었다. 에리히 바그너. 판터 부대를 지휘했던 인물이었다.

"나는... 포로인가?" 볼코프가 러시아어로 중얼거렸다.

바그너는 서툰 러시아어로 답했다. "네. 하지만 먼저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용감하게 싸웠으니까요."

"내... 내 부하들은?"

바그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볼코프의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아끼던 조종수 이반, 항상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던 포수 미하일, 갓 입대한 막내 니콜라이... 모두 사라졌다.

"당신도 훌륭한 전술가였습니다." 바그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전쟁은... 잔인하죠."

두 장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승자와 패자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전쟁이 남긴 똑같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 제7장: 포로수용소에서의 재회

### 오후 2시 - 잿빛 하늘 아래

며칠 후, 볼코프는 후방의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수용소는 국적을 불문한 패배자들의 집합소였다.

수용소 안을 터벅터벅 걷던 볼코프는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가 다시 만나다니..."

고개를 돌리자, 팔에 붕대를 감은 슈트라우스가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쿠르스크에서 겨뤘던 바로 그 독일군 대위였다.

"이것도 운명이겠지요." 볼코프가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수용소 구석 나무 그늘에 나란히 앉았다. 더 이상 서로에게 충구를 겨눌 이유가 없었다.

"당신의 부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슈트라우스가 먼저 물었다.

"모두 전사했습니다. 판터라는 놈들에게..." 볼코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조종수 한 명을 잃었습니다. 한스라는 아이였는데... 겨우 스무 살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실감을 고스란히 느꼈다. 전쟁의 잔혹함은 승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 오후 3시 - 인간에 대한 성찰

포로수용소의 작은 막사에서, 슈트라우스와 볼코프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독일군 대위와 소련군 중위가 아니었다. 뮌헨의 역사 교사였던 발터와, 투라의 트랙터 엔지니어였던 알렉산드르였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슈트라우스가 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딸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열 살쯤 됐을 텐데, 아빠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볼코프가 먼 눈으로 말했다. "당신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그레타와 두 아들이 뮌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큰 아이는 벌써 여덟 살이고, 작은 아이는 다섯 살... 제가 떠날 때는 겨우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였는데."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대체 언제 끝날까요?"

볼코프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살아남는다면 말이죠."

## 제8장: 전쟁의 끝, 그리고 시작

### 1945년 5월 8일 - 독일 항복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슈트라우스와 볼코프는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었다. 볼코프는 독일어를, 슈트라우스는 러시아어를 배웠다.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전쟁 전의 평범했던 삶을 그리워했다.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수용소는 환호와 침묵으로 뒤섞였다.

"끝났습니다, 발터." 볼코프가 말했다.

"그래요, 끝났군요, 알렉산드르." 슈트라우스가 답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슈트라우스가 말끝을 흐렸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 1945년 6월 15일 - 작별

볼코프가 소비에트 송환단과 함께 떠나는 날이 왔다. 슈트라우스는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안녕히 가시오, 알렉산드르."

"몸조심하십시오, 발터."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를 했다. 2년 전, 서로를 죽이려 했던 적이었지만, 이제는 전쟁의 참상을 함께 겪어낸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볼코프가 말했다. "언젠가 제 고향 투라에 오세요. 최고의 보드카를 대접하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당신도 뮌헨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독일 최고의 맥주를 맛보게 해드리죠."

"약속입니다."

볼코프가 트럭에 올랐다. 슈트라우스는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 1946년 3월 - 각자의 새로운 시작

고향에 돌아온 볼코프는 다시 트랙터 공장에서 일했다. 전쟁의 상흔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서서히 그를 치유하고 있었다.

딸 카차는 이제 열두 살이 되었고,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내 나타샤는 남편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나타샤가 독일에서 온 편지를 건넸다.

"친애하는 알렉산드르에게,

뮌헨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이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낸 그 힘든 시간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나눈 우정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당신의 친구, 발터"

볼코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슈트라우스 역시 볼코프의 답장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의 아내 그레타는 처음에는 적이었던 러시아인과 편지를 주고받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전쟁은 우리를 적으로 만들었지만," 슈트라우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지옥 속에서 저는 진정한 인간을 만났습니다."



# 에필로그: 1955년 - 10년 후

## 베를린, 독일

볼코프와 슈트라우스가 베를린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둘 다 머리에 흰 털이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 순간이면 충분했다.

"발터..." "알렉산드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두 사람 모두 커피잔을 돌렸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슈트라우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도요." 볼코프가 쓴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당신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을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밤이면..." 슈트라우스는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베를린의 거리엔 재건의 소음이 들렸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볼코프가 중얼거렸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죽이려 했는데."

"그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조국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슈트라우스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쿠르스크에서 당신과 마주했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선 것은 '적'이 아니라 그냥... 저와 똑같이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코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슈트라우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딸은 이제 스무 살이 되어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당신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벌써 스물셋이 되어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이는 공대생이에요."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다.

"가끔 생각합니다." 슈트라우스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처음부터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볼코프가 미소를 지었다. "전쟁은 끝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두 사람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악수를 나누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슈트라우스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헤어졌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

## 작가의 말

쿠르스크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최대 규모의 전차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소설은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전차장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성의 숭고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강철로 만든 전차 안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었고, 적과 아군이라는 경계는 결국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이 지켜낸 인간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끝